“ 예타에 발목 잡혀…전남 SOC 예산 확보 어려움 많다”

김영록 전남지사 “박근혜 정부때 개발계획서 대부분 배제”
“남해안 철도 전철화 등 시급…스마트팜 밸리 유치에 최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1일 “남해안 철도 전철화 등 전남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작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발목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획기적인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때 세워진 국토개발5개년계획과 철도 및 공항 5개년계획 등에서 전남 SOC 사업이 빠져있는데다 예타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남해안철도 건설 및 전철화 사업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남해안철도 전철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예타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축이 경부 라인에서 서해안과 남해안 축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며 “남해안권 광역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해안철도 전철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제주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해저터널보다는 남해안철도 건설이 더 급하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전남 등 8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하지만 농도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2곳, 내년초 2곳 등 모두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1800억원씩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농산업단지로 육성하게 된다.

김 지사는 “전남도 팀장·과장급 인사를 다음주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근평 순위 위주로 하되, 누가봐도 열심히 한 직원은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교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 후 첫 주재한 공사·출연기관 정책회의에서 “공사 등의 존립 목적이 공익성 제고에 있는 만큼 경영수지에 연연하지 말고 성과에 집중해 달라”며 “특히 기업 유치·벤처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남도지사 공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조배숙 대표 DJ 묘역 참배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대교체” vs “경제정당” vs “3단계 연대”… ‘호남 쟁탈전’

평화당 당권주자 3인
최경환·유성엽·정동영 의원
광주 찾아 마지막 지지 호소

최경환 의원

유성엽 의원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당권 주자들이 8·5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을 찾아 마지막 호소를 했다. 호남은 사실상 평화당의 텃밭이며, 광주·전남지역 평화당 당원도 5만여명에 달해 사실상 이 지역의 선택이 당 대표 투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당권 주자들의 지역 쟁탈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하 기호 순)은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인물이 곧 변화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최경환 당 대표’이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 상황에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가는 적당한 길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여의도, 광화문, 지방, 여·야 할 것 없이 노무현·문재인의 사람은 넘쳐나지만 ‘김대중 사람’은 없다. 새 인물이 쑥쑥 등장하는 영남처럼 호남도 세대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경환이 ‘변화의 기관차’가 돼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타계로 공동교섭단체가 상실된 데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부족한 1석을 채울 적임자로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유성엽 의원도 이날 광주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호남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명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 이대로 경제가 더욱 악화한다면 민심은 민주당을 떠날 것”이라며 “경제전문가로서 평화당을 경제정당,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과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동맥경화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과거에 잘나갔던 시절만 생각하면 평화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미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하고도 유능한 새 간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 여부는 광주·전남이 결정하는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면서 “지난 14일 5·18 민주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한 뒤 2주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회찬 의원에 대한 뜨거운 추모 열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며,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온 노 의원의 정치 업적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가 담겨 있다”며 “평화당 대표가 되면 당내 통합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 편에 서는 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평화당의 생존전략으로 ‘3단계 연대’을 제시했다. 그는 “1단계는 연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평화당·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간 5당 연대, 2단계는 재벌 개혁 입법과 권력기구 개혁, 기무사 폐지 등을 위한 평화당·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간 4당 연대,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3당 협치 내각이다”고 설명했다. 또 “20년 전,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내걸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대중경제론을 실천해 마침내 집권했다”며 “평화당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때 대안 정당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당권주자로는 이들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출마했다.

한편, 8·5 전당대회에 앞서 평화당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지도부 선출 투표가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후 7시까지 실시된다. 전당원 투표는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케이보팅에 응답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후 9시까지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평화당은 여론조사 기관 2곳을 선정해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후 9시까지 기관별 1000명씩 국민 여론조사도 한다. 평화당은 전당원 투표(90%)와 국민 여론조사(1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당대표, 2~5위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中 포함 4자 종전선언 배제 안해”

청와대는 지난 31일 판문점선언에 담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동안 종전선언 주체로 남북미 3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3자 혹은 4자 등) 형식적인 면보다는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청와대는 종전선언 성사에 대비해 미리 종전선언문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이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6·12 북미정상회담 전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청와대가 종전선언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양 정치국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고 한국 정부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 입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다음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품격] 499,000원~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품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야마구치 3일 [품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돗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추석 연휴 가족, 연인과 함께~~ 무안 ↔ 마쯔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품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품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극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품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조트 3박(2인1실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
* 특식 2회, 리조트식 3회, 코코넛 오일(or 드라이 망고) & 코코넛 비누 1SET(롤당) * 필리핀 현지 공항세(750페소/1인당) 포함
* 체험다이빙 무료강습, 라푸라푸 디스커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맛사지
* 시내관광(마젤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막탄성당, 막탄슈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씨푸드 중식)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편,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편,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쭈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사(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